

빈살만의 이유 있는 냉대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22.08.17.

**바이든의 석유증산 요청
빈살만은 싸늘하게 거절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美는 믿음 안 가는 우방
신뢰회복에 시간이 필요**

지난달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살만(MbS)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났다. 처음이었다. 2018년 사우디 정보국 요원들이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이스탄불 주재 영사관에서 잔인하게 살해하자 바이든은 배후로 지목된 최고 실세 왕세자를 맹비난했다. 인권의 기본도 모르는 수준 이하 애송이와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40년 만이라는 최악의 국내 인플레이션이 엄습했다. 바이든은 사우디 인권 문제에 눈감기로 했다. MbS를 찾아가서 달래며 증산을 부탁하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해야 했다. 이참에 중국 견제를 위해 중동을 떠난다던 정책도 뒤집고 중동 안보에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그러나 MbS는 미국의 180도 변신을 냉대했다. 증산 가능성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결국 바이든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빈손 귀국'이란 비판에 시달렸다. 민주당 진보 소장파는 독재자와 타협했다며 펄쩍 뛰었다. 국익 수호의 결단을 사우디 구애로 헐뜯다니 바이든은 기가 찼다.

MbS 는 억울했다.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여러 번 결백을 밝힌 터였다. 사우디 법원은 이미 정보국 일부의 일탈 행위로 결론 짓고 관련자 8 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은 과연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해온 최악의 언론 탄압국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등에 이토록 집요하게 망신을 주었던가.

무엇보다 미국이 그토록 바라던 사우디의 개혁을 이뤄낸 이가 바로 2017 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열 1 위 왕세자로 등극한 32 세 MbS 다. MbS 는 시민의 일상에서 이슬람법 준수를 감독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5000 여 종교경찰을 거리에서 사라지게 했다. 또 대중 공연과 영화 상영을 재개했고 여성의 운전과 축구장 입장, 공공장소에서 남녀 혼석을 허용했다. 태형을 금지했고 사형제 폐지 논의를 시작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세금을 걷었고 보조금 제도를 없앴다. 석유 의존에서 벗어날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산업 다각화를 추진했다.

해외 유학파가 다수인 유력 왕실 멤버와 달리 베두인 부족 출신 엄마를 둔 MbS 는 국내에서 이슬람법을 전공했다. 이런 배경 덕분에 MbS 는 개혁에 반발하는 강경 이슬람주의 와하비 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탈이슬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와하비 세력은 건국 초기 사우디 왕정과 연합했으나 점차 급진화되더니 알카에다를 조직해 9·11 테러를 일으켰고 곧 친미 자국 왕정을 겨냥해 수도 한복판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켰다. MbS 의 젊은 나이도 과감한 개혁 추진을 가능케 한 요소였다. 자신을 포함해 인구의 70%에 달하는 청년층은 보수 이슬람 체제에 지쳤으며 자신을 향한 비판은 청년의 미래를 막는 것이라고 공포했다. 지난 40 여 년간 왕세제는 70 대였고 가장 젊은 왕세자래 봐야 50 대였다.

MbS 가 예멘 내전에서 유엔이 인정한 정부군을 지원하는 동안 이란이 후원하는 후티 반군은 사우디 본토를 향해 1300 회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벌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란 핵합의 복원 성사를 노렸는지 후티 반군을 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게 무슨 우방국이란 말인가. MbS 는 미국이 지겹도록 강조한 탈중동 정책에 대비해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고 외교 다변화를 꾀했다. 그러자 미국은 민주주의 편에 서라고 압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는 미국이 다짜고짜 증산을 요청했다. 자유시장이 최고라면서 정치적 개입을 종용하다니 이 무슨 무례한 이중잣대인가.

바이든과 MbS 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까. 그렇지 않다. 최악의 양국 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갖게 된 것만으로 좋다. 오랜 우방인 두 나라는 서로가 필요하다. 불확실성의 시기인 지금 더 그렇다.

* 본 글은 8 월 17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